

## 고려 중기 원효의 문학적 형상화 - 임춘, 이인로, 이규보의 작품을 중심으로 -

남윤혜\*

- I. 서론
- II. 고려 중기 문학작품 속 원효의 형상
  - 1. 임춘: 비타협적인 유마힐(維摩詰)
  - 2. 이인로: 경계를 넘나든 무애행(無碍行)
  - 3. 이규보: 입체적 상대주의의 일장희(一場戲)
- III. 원효 형상에 투영된 고려 문인의 내면과 문학성
- IV. 결론: 원효의 문학적 수용과 그 의의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고려 중기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원효의 형상에 투영된 문인들의 내면 의식과 현실 인식을 조명하였다. 무신의 집권으로 문인들의 자유가 제약되었던 이 시기에 당대 문예와 사상을 대표한다고 평가되는 문인인 임춘, 이인로, 이규보는 모두 저마다의 자의식과 현실 인식, 문학적 역량에 따라 독창적인 원효의 상을 부조하였다. 이들에게 원효 관련 서사와 인물 형상은 자신의 인생을 투영한 문학적 매개로서 의미가 있었다. 문인들은 제도권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 원효와의 공명을 통해 자신의 심사를 풀어내고 작품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원효는 이 세 문인의 호명과 형상화를 통해서 개성 있는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임춘의 경우 원효를 유마힐에 비유하여 비타협적 고독감을 형상화하였는데, 이는 무신집권기 핵심 문벌의 몰락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 소외되었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성안고등학교 교사.

던 자신의 정치적 고립감과 문학적 자존감을 담은 것이었다. 이인로의 원효는 저작거리의 천한 이들 사이에서 거리낌 없이 춤추고 노래하며 자신의 사상을 펼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성숙과 귀천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원효의 모습은 세속에서의 관직 생활과 산림에서의 시문 창작, 정치적 불만과 문학적 재능 사이에서 갈등하던 이인로 자신의 현실적 고뇌가 투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규보가 원효의 생을 한바탕 놀이로 일궈낸 것은, 고정된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 상대적인 태도와 소신에 따라 현실에 참여하여 재능을 발휘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핵심어: 원효(元曉), 고려 문학, 임춘(林椿), 이인로(李仁老), 이규보(李奎報), 자기 인식, 문학적 형상화

## 1. 서론

고려 중기의 문인들은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와 문학적 형상화를 바탕으로 자의식을 정제하면서, 혼란한 시대의 정신적 좌표를 탐색하였다. 그 가운데 원효(元曉, 617~686)의 서사와 인물 형상은 당대 문인들에게 자기 시대를 성찰하고 문학적 자아를 비추는 거울처럼 기능하였다. 원효는 화쟁과 회통의 사상으로 이론적 통합을 추구하는 한편, 무애행(無碍行)으로 표상되는 실천적 행적을 남겼다. 그 실천적 사상의 유산은 고려 문인들에게 정치적 억압과 신분 질서의 모순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시대를 비판할 사유의 틀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임춘(林椿, 1148~1186 추정), 이인로(李仁老, 1152~1220),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 중기 문학작품 속에서 원효가 어떻게 형상화되었으며 그 형상이 각 문인의 내면의식과 어떤 관련을 맺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려 문학사에서 원효가 문인의 심리적 갈등과 시대적 자각을 표현하는 문학적 장치로 작용했음을 밝히는 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원효 관련 서사적 전승은 신라시대의 전기에서부터 고려·조선시대 문헌·구비 자료, 근대 장편소설에 이르기까지 서사문학사 전반에 걸쳐 폭넓

게 전해 내려왔으며, 그 형상은 시대와 전승자의 의식에 따라 수준 높은 고승에서 대중 속의 기인(奇人)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모하였다.<sup>1)</sup> 의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오도(悟道)를 성취하는 사상가, 샘물을 용출케 하는 등의 영험한 이적을 행하는 신통력을 갖춘 인물, 박을 두드리고 술에 취해 떠도는 방랑객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일반에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해골 속 물을 먹고 깨달음을 얻는 장면일 것이고, 근대로 들어 이광수의 소설 『원효대사』에서는 보살이라면 삼계중생을 다 죽이더라도 살생이 아닌 자비라고 말하는 극단적 인물로까지 그려진다.<sup>2)</sup>

원효의 이처럼 다양한 형상은 단순한 역사적 왜곡이나 굴절로 단정하기 보다는 후대 전승자들이 원효를 매개로 자신의 사상과 내면을 투영한 창조적 수용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sup>3)</sup>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문인들이 표현한 원효 형상은 그 당시의 문학적, 사상적 관심사와 문인들 자신의 내면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원효의 형상은 ‘정확히 복원해야 할 역사적 실체’라기보다는<sup>4)</sup> 시대마다 새롭게 재구성되는 문학적 자화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5)</sup>

- 
- 1) 조동일, 『원효설화의 변모와 사상 논쟁』(『한국의 문학과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6, 41~96면)은 원효 관련 설화를 화소 단위로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함으로써 원효를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 2) 박근섭,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통해 본 전시동원체제와 식민교육의 성격』(『교육문제연구』 26,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3, 103면)에서는 “20세기 한국의 정치사회적 현실은 역사 속의 인물 원효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내 청년, 학생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재로 삼았다”고 비판하였다.
  - 3) 오대혁, 『원효 설화의 미학』(불교춘추사, 1999)에서는 원효 관련 문헌, 구비 설화를 망라하여 설화의 수용자와 전승자의 의도에 따라 이야기가 전승되고 변모하는 양상을 포괄적으로 탐구하였고, 서철원, 『설화 속 원효 형상에 대한 이중적 시선의 의미』(『고전문학연구』 46, 한국고전문학회, 2014)에서는 설화의 전승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고민을 원효의 형상에 투영했음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4) 다음의 연구들은 후대 전승물 속 원효의 모습이 원효의 역사적 실체로부터 멀어졌다고 분석하였다. 김상현, 『고려시대의 원효 인식』(『한국학(구 정선문화연구)』 17-1(통권5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4, 85면)에서는 고려후기에 원효 교학에 대한 이해가 빈곤해지면서 원효의 무애행이 더욱 설화적으로 윤색되었다고 하였고, 진성규, 『조선시대 원효인식』(『중앙사론』 14,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00, 22면)에서는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의 한계 때문에 원효 이해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하였다. 본고의 관심은 작품에 나타난 원효의 형상과 실제 원효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그 형상에 개입되는 작가의 의도, 자의식, 표현 양상 등의 문학적성에 있다.
  - 5)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48~149면)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문학작품에서 작가가 원효와 공명하여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작품의 문학성을 제고한 측면을 주목한다. 특히 고려 무신집권기의 대표적 문인인 임춘, 이인로, 이규보가 원효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양상과 그 과정에 투영된 자기 인식을 분석한다.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이들은 각기 다른 처지에서 시대의 불안과 문인의 자부심을 경험하였는데, 모두 원효를 매개로 자신의 현실을 재해석하고 문학적 개성을 구현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임춘의 정치적 소외로 인한 비타협적 태도,<sup>6)</sup> 이인로의 현실 참여 제한으로 인한 부자유와 그 문학적 해소<sup>7)</sup>, 이규보의 상대적이고 자유분방한 면모<sup>8)</sup>는 이들이 그린 원효 형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려의 시대적 분위기와 원효라는 캐릭터의 입체적인 특징을 모두 고려하면서, 작품에 묻어나는 불교적인 색채를 넘어 각 문인마다의 개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서는 이광수의 『원효대사』 속 과거승 원효가 바로 이광수 자신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소설을 작가의 자기 정당화 내지 변명이라 읽었고, 방민호, 『이광수 장편소설 『원효대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한국현대문학회 2011년 제1차 전국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00면)에서는 소설에서 원효의 과거에 천착한 것에 주목하여 『원효대사』는 이광수의 전향을 위한 투쟁이 작품으로 구조화된 것이라 규정하였다. 근대 소설과 고려시대 시문 사이에는 시대와 문체, 작가 의식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겠지만, 이광수의 소설 『원효대사』와 본고에서 다룬 작품들은 원효를 중심 소재로 작가의 내면을 투영한 문학적 창작물이라는 측면에서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된다.

- 6) 임춘은 늦게나마 관직에 올랐던 친구 이인로나 오세재와는 달리 끝까지 쓰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문학적 자부심은 누구보다 강했다. 그가 세상과 화합하지 못했음은 스스로를 ‘放曠’, ‘疏狂’, ‘野性迂疏’라 평가하거나 당대 ‘재주만 믿고 사물을 업신여겨 마침내 급제 한번 못하고 곤궁하게 살다 죽었다’란 세평이 있을 만큼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동철, 『임춘 시에 나타난 자아인식 고찰』, 『어문학』 55, 한국어문학회, 1994, 292~203면.
- 7) 박수철, 『이인로의 시문학에 나타난 현실참여의 갈망과 문학성』, 『한국한시연구』 20, 한국한시학회, 2012.
- 8) 심호택, 『고려 중기 문학론』(보고사, 2014, 150~156면;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출판본인 『고려 중기 문학론 연구』(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1)의 재판간행본)에서는 이규보가 작은 동식물과 무생물의 입장까지 대변하는 작품을 창작한 데서 그의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포착하였다. 이동철, 『고려 중기 문인들의 자아 인식의 양상 - 임춘과 이규보의 경우』, 『어문학』 62, 한국어문학회, 1998, 183~195면)에서는 이규보에게 진진사인으로서 가문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것은 미미하고 유불도의 개방적, 포괄적 수용,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풍류객 등의 면모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이규보의 자기의식을 ‘狂’, 즉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제멋대로 행한 점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제출되었다(문철영, 『이규보의 나르시시즘과 평가』, 『동방학지』 193, 동방학회, 2020; 장진엽, 『이규보 문학에 나타나는 자기형상의 양상과 그 의미 - 自述의 요소에 주목하여』, 『온지논총』 68, 온지학회, 2021).

본 논문은 이들 문인에게 원효가 불교 고승이라는 실체적 사실보다도 제도권의 엮매임에서 벗어난 풍류, 자유, 전환의 서사를 갖춘 존재였다는 점이 중요했다고 본다. 시문에 자주 등장하는 구름, 바람과 같은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자연물과 달리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원효’라는 인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얼굴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원효의 서사는 문인들이 각자 처한 정치적·정신적 긴장을 구체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다층적 구조를 제공한다. 원효가 가진 성스러움과 속됨, 귀함과 천함, 제도와 제도 밖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중적 이미지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현격한 차이에서 고뇌를 겪었던 후대 문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포개기에 적합한 서사적 틀이었다.<sup>9)</sup>

한편 원효가 특히 이 세 문인의 호명과 형상화를 통해서 개성 있는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학 연구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고려·조선시대 문헌에 등장하는 원효는 대개 기행문이나 필기, 잡록에 짝막하게 언급될 뿐이고 조선중기 이후로는 그나마도 요석공주와 설총 관련 화소가 대부분이다. 원효 자체를 전면에 내세워 형상화한 문학작품은 전 시기를 통틀어 찾아보기 어려운데 불교 인물로부터의 간극이 멀어진 조선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김부식, 정지상, 이제현과 같은 고려의 대표적인 문인의 시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sup>10)</sup> 그렇다면 세 문인의 특정한 처지와 각자의 현실 인식이 각각 원효라는 캐릭터의 어느 한 면과 공명하는 지점을 발생시켜 작품 창작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9) 심사위원 중 구름과 같은 상징적 자연물과 달리 원효라는 인물을 소환할 때 갖는 장점이 무엇인지, 원효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발견되는 내면의식이 무엇인지를 조명해야 한다는 세심한 조언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심화할 수 있었다. 대체로 상징적 자연물을 읊은 시문에 일관되고 고정된 정서가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당대에 이미 다양한 시선으로 그려져 온 원효라는 실존 인물을 끌어오으로써 임춘, 이인로, 이규보 등 문인들은 현실에서의 복잡한 심경과 긴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투영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료와 지면의 한계로 일부 작품의 분석에 한정했지만 여기서 다룬 작품들이 원효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작품 중 문학적성과 독창성이 높고 이들 문인이 그 시대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방법론이 미흡하나마 작품론 연구에 유효한 가능성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0)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원효를 별도로 입전하지 않고 설총 열전에서 가계로 간략히 언급만 하였다.

## II. 고려 중기 문학작품 속 원효의 형상

### 1. 임춘: 비타협적인 유마힐(維摩詰)

임춘은 고려 무신집권기 대표적인 문인으로, 생물연대는 1148년에서 1186년 정도로 추정된다.<sup>11)</sup> 개국의 공이 있는 당대 명문가 출신으로 정3품 상서에 이른 임광비(林光庇)를 부친으로 두었고 한림원학사를 지낸 백부 임종비(林宗庇)에게서 수학하였다. 그러나 1170년 정중부의 난으로 부친과 백부를 잃고 공음전도 빼앗기며 멸문에 가깝게 되었고, 김보당의 집권무신 제거와 의종 복위 기도가 실패하고 문신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자 식솔들을 이끌고 개경을 떠나 영남으로 내려갔다. 젊은 시절부터 태학에서 공부하고 관직 천거를 청탁하거나 예부시에 응시하곤 했던 그는 낙향해서도 틈틈이 재기의 기회를 살렸으며, 1182년 상경한 뒤에도 과거에 응시하며 적극적으로 입신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시주(詩酒)를 함께하던 벗 이인로나 오세재가 뒤늦게 과거에 합격한 것과는 달리 임춘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궁핍한 생활 속에 실의에 찬 작품을 남기다가 길지 않은 생을 마쳤다.

무신집권기 초반 가족과 영남으로 내려가 예천, 상주에 머무르던 중 성주, 밀양 등지를 둘러보며 시를 지었고, 이때 관동지역을 유람하며 우리 문학사에서 이른 시기의 문학성 높은 기행수필로 평가되는 <동행기(東行記)>를 남겼다.<sup>12)</sup> 다음은 글 중 낙산을 지나다 원효와 의상을 떠올리며 기술한 대목이다.

새벽에 마을의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길을 나서 낙산(洛山) 서쪽을 지나는데, 길에 외따로 선 소나무가 있었다. 마디와 옹이는 울퉁불퉁하고 가지와 줄기는 구불구불 휘감겨 땅에 그늘을 드리우니 둘레가 수십 보나 되었다. 특이하구나!

11) 임춘의 생애와 문학세계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연구되어왔는데, 여운필, 『임춘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한국한시연구』 4, 한국한시학회, 1996)에서는 이전 연구에 나타난 여러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가계, 생애, 작품 창작시기 등을 상세하게 밝혔다. 임춘의 생물연대와 생애, 인용한 작품의 창작시기는 이 논문의 고증을 따른 것이다.

12) 김익환, 『<東行記>의 수필적 曉性과 의의』(『한국언어문학』 54, 한국언어문학회, 2005)에서는 이 작품을 최초의 <왕오천축국전>을 잇고 이규보의 <남행월일기>와 이곡의 <동유기> 창작의 발판이 된, 신라-고려시대의 기행수필을 연계하는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작품의 창작시기는 1178년에서 1182년 사이로 추정된다(여운필, 앞의 논문, 224면).

소나무로서 이렇게 기이하게 생긴 것이 세상에 또다시 있을까? 동천(洞天)처럼 그윽하고 운수(雲水)처럼 아득하여 응당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라 신선이 사는 곳이었으니, 고사(高士)의 은일하던 자취가 완전히 어려있었다. 나는 옛날 원효와 의상 두 분 범사를 떠올리고는 (그분들처럼) 선굴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싶었지만, 몸과 기운이 다 범속하여 안타깝게도 뵙지 못하고 돌아왔다. 전하는 이야기를 묻고 싶었으나 그저 길게 뻗은 산과 흘러가는 물이나 볼 수 있을 뿐, 수백 년 동안에 옛집과 남은 풍속이 모두 없어졌다. 이에 절구(絶句) 두 편을 지어서 이를 회상한다.

일찍이 들었노라 유마힐 거사는 나이 들어서  
지팡이 휘저으며 허공 건너 만 리 길 갔다고  
문수보살까지 보내 문병토록 했지만  
별일 없이는 비사리에서 나오지 않았지.  
(원효를 이른 것이다.) (후략)<sup>13)</sup>

시서(詩序) 중 원효와 의상 관련 설화를 언급한 부분은 작품의 전체적인 비감(悲感)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sup>14)</sup> 이 전날 밤 작자는 강릉을 지나 북으로 양양에 이르러 쓸쓸하고 궁벽한 촌락과 저녁 어스름에 가물거리는 고기잡이배 등불을 보고 객수(客愁)에 젖었다.<sup>15)</sup> 이튿날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듣고 길을 나섰다가 기이하게 생긴 소나무를 보고 ‘낙산의 관음송’을 떠올리고, 이어 근처의 신비로운 동굴에서 관음을 마주했다는 두 고승의 일화가 생각난 것이다. 주변의 분위기와 전설에 취해 두 선사가 체험한 기사(奇事)에 대해 더 듣고 싶었지만 그저 주욱 뻗어있는 산과 길게 흐르는 강만 홀로 서서 볼 뿐, 세월이 흘러 주변에는 마을도 집도 사람도 없었기에

13) 林椿, <東行記>, 『西河集』卷5. “曉聞村雞一號, 行過洛山之西, 路有孤松, 節目磳阿, 枝幹屈盤, 蔭地而周圍者數十步. 異哉! 松之奇怪, 世復有如是者耶? 洞天幽寂, 雲水沉沉, 殆非人間之境, 仙靈之所居, 高士之逸迹, 宛然在焉. 余感昔新羅元曉·義相二法師, 親謁觀音於仙窟中, 自歎其骨凡氣俗, 未遇而返. 欲問遺事, 則徒見其山長水流, 而數百年間, 故家遺俗盡矣. 乃作二絕以懷之曰 ‘曾聞居士老維摩, 飛錫凌空萬里過. 已遣文殊來問疾, 不應無事出毘耶.’ (謂元曉也) …”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번역(임장순, 1968)을 따르되 일부 수정하였다.

14) 하정승, 『임춘 시에 나타난 허무의식과 悲慨美』, 『포은학연구』 19, (2017)에서는 임춘의 비판적 세계인식과 허무의식이 그 문학의 핵심 요소로 나타난다고 파악하였다.

15) 林椿, 위의 글 직전 부분. “人民聚落, 蕭然甚僻, 登其城以望之, 薄暮冥冥, 道傍漁舍, 燈火隱顯, 使人有懷鄉去國, 淒然感極而悲者.”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원효와 의상 두 대사가 낙산에서 관음을 보았다는 설화는 문헌에서는 이 글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sup>16)</sup> 뒤 시기 『삼국유사』에서 일연은 단정하게 재계한 의상이 용과 8부(部) 시종의 도움으로 그곳이 관음의 진신이 살고 있는 곳임을 깨닫는 데 반해 원효는 동네 아낙의 모습으로 나타난 관음의 시험에 들지만 끝내 관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로 그려내었다.<sup>17)</sup> 두 기록의 기술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은 임춘이 ‘불교적인 작업을 이해하려 하지 않은 안이한 자세’를 취해서였다기보다는<sup>18)</sup> 오히려 일연이, 의상과 원효 같은 고승일지라도 일순간의 교만과 아집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 위해 극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sup>19)</sup> 일연은 원효를 통해 불교적인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임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았다.<sup>20)</sup>

이어지는 시에서 임춘은 원효를 유마힐에 비유하였다. 유마힐은 비사리성에서 나오지 않고 병을 청탁하여 가르침을 전하던 승려이다. 부처가 최고 지혜를 가진 문수보살을 보내 문병케 하자, 중생이 병들어 자신도 병든 것이라며 오히려 문수보살을 비롯한 여러 부처의 제자들이 병들었음을 보이는 대승의 상징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원효를 불교경전의 저술이나 교리의 발전을 촉진한 업적에 주목하여 마명이나 용수에 비견한 의천과는 달리,<sup>21)</sup> 임춘은 유마힐에 비겨 원효를 회고하였다. 실제로 원효는 『유마경(維摩經)』에 관심을 가지고 주석서를 내기도 했으며, 대중과 함께하면서 깨달음을 도왔던 그의 무애행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도박장이나 술집에 출입해도 좋다는 『유마경』의 가르침에 닿아있는 것이었다.<sup>22)</sup> 유마힐은 『유마경』

16) 조동일, 앞의 책, 71면.

17) 一然, 『三國遺事』,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條.

18) 조동일, 앞의 책, 95면.

19) 서철원, 앞의 논문, 121면.

20) 남동신, 『원효와 분황사 관계의 사적 추이』(『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0, 신라문화선양회, 1999) 100면에서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원효의 삶을 재구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삼국유사』의 원효상은 원효 자체보다는 고려후기의 원효 인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하였다. 물론 『삼국유사』의 원효상은 고려후기까지의 원효에 대한 인식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일연의 원효 인식’이라 해야 할 것이다.

21) 義天, <讀海東教迹>, 『大覺國師文集』 卷20.

을 통해 속인(俗人)의 풍부한 경험이 승려의 고매한 수행에 뒤지지 않는 가치가 있음을 드러냈다. 원효는 환속하여 소성거사라는 이름으로 대중불교의 씨를 뿌려 성장시켰다. 일연 역시 소성거사로서의 원효의 공로를 『금강삼매경』을 주석했던 고승으로서의 성과보다 먼저 서술하였고, 한국 불교의 새벽을 열었다 하여 그 이름도 새벽이라는 뜻의 원효라고 하였다.

임춘이 당시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된 것은 그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끝내 권력과는 먼 거리에서 글벗들과 교유하며 세월을 보냈다. 당시 권력층에 대한 임춘의 비타협적 태도는 원효가 당대 교조적 교단에 대한 저항과 비타협적 측면에서 대중과 함께한 것과도 상통한다. 임춘은 당대 불교 교단의 권위를 등지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며 오히려 제도권 안의 출가자를 능가했던 유마힐과 원효에게서, 문인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소외된 처지의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울적한 심사를 자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권력과의 비타협이라는 점에서 원효와 동질감을 느끼고, 이를 유마힐의 정신과 같다고 옹호한 것이다.

## 2. 이인로: 경계를 넘나든 무애행(無導行)

이인로의 본관은 무신난 이전까지 오랜 외척으로 고려 3대 문벌 중 하나였던 경원이씨이다. 문장으로 영광을 누린 귀족가 출신이지만 고아로 자라면서 승려에게 길러졌고, 19세에는 정중부의 난이 일어나 불문(佛門)으로 피신하였다. 환속하여 1175년 진사과에 급제한 뒤 태학에서 공부하고, 1180년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한림원에 부임한 뒤 14년간 나라의 조칙을 담당했을 정도로 당대 시문으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무신 정권하에서 그 문학적 역량에 비해 현달과는 거리가 먼 환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다.<sup>22)</sup> 관직 생활은 말단을 전전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자신의 문장을 자부하며, 임춘, 오세재 등과 죽림고회를 모방한 모임을 결성하여 시주를 즐거움으로 삼기도 하고 만년에는 전대의 우리나라 시 작품을 가려 모으고

22) 이희재, 『한국불교사에서의 『유마경』의 지위』, 『한국학연구』 3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333~335면.

23) 박수천, 『이인로의 시문학에 나타난 현실참여의 갈망과 문학성』, 『한국한시연구』 20, 2012, 한국한시학회, 137~145면.

그의 시문학관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시화집인 『파환집』을 저술하였다. 총 83조에 이르는 시평, 시화, 수필 가운데 원효에 관한 다음의 기록이 있다.

옛날 원효대성은 백정과 술장사 무리와 어울려 살았다. 일찍이 목이 굵은 호로병을 매만지고 놀며 저갯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었는데 이를 ‘무애(無導)’라 이름했다. 뒷날 호사가들이 호로병 위에 쇠 방울을 묶고 아래로 채색 비단을 늘 어뜨려 이를 두드리며 앞뒤로 덩실거리니, 모두 가락에 맞았다. 여기에 경론 계송에서 따와 ‘무애가(無導歌)’라 이름하니, 밭에서 일하는 늙은이까지 그것을 따라하여 놀이로 삼았다. 무애지(無導智) 국사는 일찍이 시를 짓기를, “이 물건은 오랫동안 쓸모없는 것으로 쓰였고, 옛사람들은 도리어 이름없는 것으로 이름하였네.” 하였다. 근래에 관휴(貫休)라는 승려(山人)는 계를 짓기를, “양 소매를 휘두르는 것은 이장(二障)을 끊어내려는 것이고, 밭을 세 번 드는 것은 삼계(三界)를 초월하고자 해서라네.” 하였다. 모두 진리를 그 춤에 비유한 것이다. 나 또한 그 춤을 보고서 찬을 지었다.

배는 가을 매미 같고  
 목은 여름 자라 같네.  
 굵어서 남을 따를 수가 있고  
 텅 비어 만물을 받아들일 만하네.  
 걸 고운 숫돌에도 걸리지 않고  
 나물통에 비웃음당하지도 않는다네.  
 한상(韓湘)이 이로써 세상에 자취를 감추었고  
 장자(莊子)가 이것으로 강호를 주유한다 했네.  
 누가 그를 이름했다, 소성거사라고.  
 누가 그를 기리는가, 농서타리라네.<sup>24)</sup>

이인로의 원효는 호로병을 악기 삼아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예인과도 같

24) 李仁老, 『破閑集』 下. “昔元曉大聖, 混迹屠沽中, 嘗撫玩曲項葫蘆, 歌舞於市, 名之曰‘無導’. 是後好事者, 綴金鈴於上, 垂彩帛於下以爲飾, 拊擊進退皆中音節, 酒乃摘取經論偈頌, 號曰‘無導歌’, 至於田翁亦效之以爲戲. 無導智國嘗題云, ‘此物久將無用用, 昔人還以不名名.’ 近有山人貫休作偈云, ‘揮雙袖所以斷二障, 三舉足所以越三界.’ 皆以眞理比之. 僕亦見其舞作讚, ‘復若秋蟬, 頸如夏鼈, 其曲可以從人, 其虛可以容物. 不見塞於密石, 勿見笑於葵壺. 韓湘以之藏世界, 莊叟以之泛江湖. 孰爲之名, 小性居士. 孰爲之讚, 隴西駝李.’”

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구애받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애(無碍)’는 『화엄경』에서 가져온 것으로, 원효가 저자에서 천한 무리와 섞여 춤과 노래를 일삼은 것은 귀함과 천함, 성(聖)과 속(俗)은 둘이 아니라는 일심 사상과,<sup>25)</sup> 종교적 수행과 일상적 삶의 통합인 거사불교라는<sup>26)</sup> 그의 핵심 사상이 뒷받침된 것이었다. 저자의 광대와 같은 모습 이면에 확고한 종교적 사상이 자리했던 원효의 형상은, 죽림에서 시주로 소일할망정 독보적인 문학적 역량을 갖추었던 이인로 자신의 모습과도 닮았다. 여기에 명문가 출신임에도 불문에서 불우하게 자란 성장 배경, 탁월한 문재를 지니고도 말단직을 전전하던 정치적 사정, 조정에 출입하면서도 산에서 은거하다시피 한 행적 등 탈속과 환속, 관료와 문인의 경계를 넘나들던 이인로의 현실적 처지가 겹쳐 보인다.

앞의 여섯 구에서 호로병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중에 원효의 포용적이고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절묘하게 덧씌워 담아내고, 뒤의 네 구에서는 용사의 대가답게 고유명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작품을 마무리하였다. 도교 팔선(八仙) 중 한 명이자 한유(韓愈)의 질손으로 알려져 있는 한상(韓湘)은 관행적으로 통 모양의 악기와 함께 그려지고, 장자는 너무 커서 쓸모없게 된 조롱박을 부수었다는 혜자에게 그것으로 큰 통을 만들어 물에 띄워 노닐 수 있다고 하였다. 원효와 같이 호로병을 가지고 세상을 소요한 이 두 인물을 병칭하여, 속세에 초연한 선인(仙人)의 이미지를 끌어온 것이다. 이인로는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으면서[無碍] 행한 원효의 춤과 노래에 대해 선가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마지막에 ‘농서타리’라 자칭하며<sup>27)</sup> 자신을 원효라는 역사적 인물에 스스로를 병립시킨 데서는 이인로의 당당함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sup>28)</sup> 그러

25) 元曉, 『大乘起信論疏』 卷上. “何爲一心. 謂染淨諸法其性無二, 眞妄二門不得有異. 故名爲一. 此無二處諸法中實, 不同虛空, 性者信解, 故名爲心. 然既無有二, 何得有一, 一無所有, 就誰曰心. 如是道理, 離言絕慮, 不知何以目之, 強號爲一心也.”

26) 남동신, 앞의 논문, 106면.

27) 隴西는 지금의 중국 甘肅省 서쪽, 황하 동쪽 지역에 해당하는 곳인데, 李陵과 李白이 이곳에 살았던 것을 떠올리며 후대에 李氏를 隴西라 칭하기도 하였다. 이백은 <與韓荊州書>에서 자신을 “隴西布衣”로 칭한 바 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이인로는 ‘농서타리’라 자칭하면서 詩仙 이백에 자신을 견주며 은근히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

28) 이인로는 문인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자신의 시재를 자부하였다.(李仁老, 『破閑集』 卷下. “僕先祖, 世以文章相繼, 紅紙相傳今已八葉矣. 僕以不才偶居多士之先, 而長子程第四人, 次讓第三, 次樞第二, 雖巋然露頭角, 科級魏, 而未有能卓然處狀頭, 得與父同

나 이 당당함과 자부심의 이면에는, 자신의 제한된 정치적 입지와 탁월한 문학적 역량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좌절감이나 갈증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에 장원급제할 만큼 뛰어난 문학적 역량을 가지고도 현달하기는커녕 말단 관직을 전전하며 살아야 하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불만감과 함께 원효처럼 거리낌 없는 행보에 대한 갈망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 3. 이규보: 입체적 상대주의의 일장희(一場戲)

무신 정권하에서 가문이 몰락해 끝내 입신출세하지 못하고 불우하게 살다 간 임춘과는 달리 이규보는 애초에 문벌 출신이 아니었고, 권력의 필요에 힘입기도 하면서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또 뒤늦게 과거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했지만 오랜 불문 생활을 하다 청담을 표방하며 시작(詩作)에 자족했던 이인로와도 달랐다. 관료 생활을 하는 중에도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문학의 형식을 통해 자유분방하고 적극적으로 펼쳐내었다. 이규보의 문학에 대해서는 후대 특히 조선 문인들로부터 비판과 찬사의 상반된 평가가 이어졌고, 현대 연구에서도 정권에 영합한 어용문인이라는 혹평을 받는 동시에 발달한 사유를 담은 작가이자 민족문학사로의 전환을 이끈 선구자로 평가되기도 하였다.<sup>29)</sup>

이규보는 22세에 사마시에서 장원급제하고도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다가 십여 년이 지난 1199년이 되어서야 처음 전주목의 사록겸서기(司錄兼書記)로 부임되었는데, 여기에 머물던 1년 4개월 동안 임지 일대를 유람하고 얻은 견문을 엮어 1201년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를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시, 산문, 대화 등의 형식으로 풍속이나 설화까지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기행문인 혜초(慧超, 704~787)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김대문(金大問)의 <한산기(漢山記)>를 잇고 이후 일기형식의 기행수필 창작의 전범이 되었다는 문학사적 위상을 부여받은 바 있다.<sup>30)</sup> 다음은 그 중 변산의 원효방을 탐방하고 당시 구전되던 설화를

科者. 高陽月師作詩賀曰 ‘三子聯珠繼父風, 四枝仙桂一家中, 連年雖占黃金榜, 尙避龍頭讓老翁.’”)

29) 조동일, 『이규보』,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1978, 69면.

30) <남행월일기>의 창작 배경과 문학사적 위상에 대해서는 경일남, 『남행월일기의 수필적 특

수용하여 구성한 대목이다.

① 이해 8월 20일은 내 선군의 기일이었다. 하루 앞서 변산 소래사에 갔는데, 벽 위에 고(故) 자현거사(資玄居士)의 시가 있기에 나도 화운하여 2수를 벽에 썼다.

② 다음날 부령현령 이군(李君) 및 다른 객 6~7인과 더불어 원효방(元曉房)에 이르렀다. 높이가 수십 층이나 되는 나무 사다리가 있어서 발을 후들후들 떨며 올라 겨우 이를 수 있었다. 정계(庭階)와 창호(窓戶)가 수풀 끝에 솟아나 있었다. 듣기로 이따금 범과 표범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다가 결국 올라오지 못한다고 한다. 곁에 한 암자가 있는데, 세상에 전하는 말에 사포성인(蛇包聖人)이란 이가 옛날 머물던 곳이라 한다. 원효가 와서 살자 사포가 또한 와서 모시고 있었는데, 차를 달여 원효공께 드리려 하였으나 샘물이 없어 걱정하던 중에, 이 물이 바위틈에서 갑자기 솟아났는데 맛이 매우 달아 젓과 같으므로 차를 끓여 마셨다 한다.

③ 원효방은 겨우 8척쯤 되는데, 한 늙은 중이 거처하고 있었다. 그는 삼살개 눈썹과 다 해어진 누비옷에 도인의 풍모가 고고(高高)하였다. 방 가운데를 막아 내실과 외실을 만들었는데, 내실에는 불상과 원효의眞容이 있고, 외실에는 병하나, 신 한 켤레, 찻간과 경계(經机)만이 있을 뿐, 취사도구도 없고 모시는 자도 없었다. 그는 다만 소래사에 가서 하루 한 차례의 재(齋)에 참여할 뿐이라 한다.

④ 나의 배리(陪吏)가 슬그머니 나에게 말하기를, “이 대사는 일찍이 전주에 우거했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힘을 믿고 횡포하매 사람들이 모두 성가시게 여기더니 그 뒤 간 곳을 몰랐는데, 지금 보니 바로 그 대사이옵니다.” 하였다. 내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대저 중품·하품의 사람은 그 기국이 일정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지만, 악(惡)으로써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자는 그 기국이 보통 사람과 다르므로 한번 선(善)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이처럼 초월하는 것이다. 옛날에 사냥하던 장수가 우두 이조대사(牛頭二祖大士)를 만나 허물을 고치고 선을 닦아 마침내 숙덕(宿德)을 이루었고, 우리나라의 명덕대사(明德大士)도 매사냥을 하다가 보덕성사(普德聖師)의 고제(高弟)가 되었으니, 이런 유로 미루어 본다면, 이 대사가 마음과 행실을 고쳐 문득 달리 행동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였다.<sup>31)</sup>

성, 『한국언어문학』 29, 한국언어문학회, 1991)을 참고하였다.

31) 李奎報, <南行月日記>, 『東國李相國全集』 卷23. “①是年八月二十日, 予先君諱旦也. 先一日遂往邊山蘇來寺, 壁上有故資玄居士詩. 予亦和二首書于壁. ②明日, 與扶寧縣宰李君及餘客六七人, 至元曉房. 有木梯高數十級, 疊足凌兢而行, 乃得至焉. 庭階窓戶, 上出林杪, 聞往有虎豹攀緣而未上者. 傍有一庵, 俗語所云蛇包聖人所昔住也. 以元曉來居, 故蛇包亦來侍, 欲試茶進曉公, 病無泉水, 此水從巖罅忽湧出, 味極甘如乳, 因嘗點茶也. ③元曉房才八尺, 有一老闍梨居之,

먼저 생동감 있는 묘사와 활발한 분위기가 두드러져, 같은 기행문이지만 앞서 본 임춘의 글과는 대조적이다. ①부터 ④까지를 한 편의 완결된 일화라 보아도 손색이 없도록 뛰어난 구성력을 보이기도 하다. ②는 원효설화를 인용한 부분인데, 당시 원효와 사포가 이곳에 우거하던 중 없던 샘물이 갑자기 생겨 나와 차를 끓여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던 듯하다.<sup>32)</sup> 사포는 원효와 함께 흥륜사(興輪寺) 대웅전에 봉안된 10성인 중 하나로,<sup>33)</sup> 『삼국유사』 「사복불언」조에 등장하는 사복과 같은 인물로 비정(比定)된다. 삼국유사에서는 원효와 동등하게 교유하거나 오히려 법력이 더 높은 듯 묘사되기도 했지만, 더 이른 시기에 창작된 이규보의 이 글에서는 사포[사복]가 원효를 정중히 대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충돌되는 이야기들은 전승자의 태도에 따라 원효의 형상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효를 둘러싼 인물 관계 역시 달라지는 역동성을 보여준다.<sup>34)</sup>

②에서 높다란 사다리를 타고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疊足凌兢]’ 호랑이도 오르지 못하는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곳에 머물렀다던 원효대사의 자취는 없고 영정만이 남아 우리를 수 있었다. ③에서는 원효방의 면면이

---

廬眉破衲，道貌高古。障其中爲內外室，內室有佛像元曉眞容，外則一瓶雙屨茶瓷經机而已。更無炊具，亦無侍者，但於蘇來寺，日趁一齋耳。④予陪史竊語予曰：‘此師嘗遇全州，所至恃力橫暴，人皆病之，其後莫知所去，今見之則其師也。’予歎曰：‘夫中下人，其器有常，故滯而莫遷，凡以惡駭人者，器必有異於人，故其反於善，必岌岌超卓如此者。昔有獵將遇牛頭二祖大士，改過修善，卒成宿德，海東明德大士，亦自捉鷹，爲普德聖師之高弟。推此類言之，此師之折節易行，介然有殊行，殊不爲怪也。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동국이상국집 번역(이정섭, 1978)을 따르되 일부 수정하였다.

32) 샘물 용출 설화는 이전의 원효 관련 승전류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지역 관련 설화로 구비전승되어 오다가 이규보에 의해 작품에 들어가 남게 된 듯하다. 이후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 것으로 보이는데, 양양의 영월사에 지팡이를 꽂아 나선 흥연암 普陀窟에 물이 나오게 했다가, 경산의 천성암에 복숭아 작대기를 꽂고 떠나자 그 자리에 꽂아 피고 샘물이 나와 아직도 그 물을 먹는다는 등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김광순, 『한국구비전승의 문학』, 형설출판사, 1983, 97~98면. 1979년 채록자료). 오대협, 앞의 책, 159~160면에서는 사찰창건 설화에 주요 모티프로 등장하는 점, 신라 때부터 獻茶儀式이 행해졌던 점 등을 들어 샘물 용출 설화의 문화사적 의미를 설명하였다.

33) 一然, 『三國遺事』 卷3, 義解, 『東京興輪寺金堂十聖』條.

34) 김상현, 「사복설화의 불교적 의미」, 『사학지』 16, 단국사학회, 1982, 586면에서는 『삼국유사』의 각 편 내 항목이 대체로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원효-의상-사복 순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사복이 원효의 제자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각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따라 인물들의 상호관계나 역할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남을 지적하여 설화 이해의 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찬찬히 묘사되고, 군더더기 없는 단출한 방장의 모습과 하루 한 차례 절에 재(齋)를 지내러 다녀오는 것이 일과인 노승을 통해 담박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그러다 ④에서는 이 고승(高僧)으로 보이는 자의 과거가 폭로되면서 분위기가 전환된다. 전주에서 힘없는 이들에게 횡포를 부리다가 한동안 보이지 않던 사내가 바로 눈앞의 노승이라는 것이다. 이야기를 속삭이는 배리에게 이규보는, 기국이 남다른 자는 악한 행동을 했다라도 선(善)으로 돌아서면 이처럼 비범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음을 일러준다. 이어 사냥이나 하던 당대(唐代)의 장수와 신라의 명덕(明德)이 각각 불교에 귀의하여 높은 선적 성취를 이룬 고사를 들어 이를 뒷받침하였다.

이규보는 배리라는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다양한 설화를 활용하고 자신의 글쓰기 역량을 과시하며 나름의 교훈적 메시지까지 전달하였다. 특히 여기서의 교훈은 원효, 그리고 원효 설화의 전승자들이 강조한 ‘참회’와 ‘깨달음’과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원효는 <대승육정참회>에서 “모든 업장(業障)에서 말미암은 참회를 하고 나서/ 또한 六情과 거리낌 없던 일까지 참회 할지어다[於諸業障, 作是悔已. 亦應懺悔, 六情放逸].”라 했고, 일연은 『삼국유사』 『감통』의 <광덕 업장>조에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려는 업장에게 원효가 쟁관법이라는 참회의 법을 가르쳐주었다고 기록하였다.<sup>35)</sup> 이규보의 글에서 악행을 일삼던 과거를 뉘우치고 깨달음에 이른 노승의 형상은, 인생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뒤의 참회와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원효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다.

원효가 참회를 중시했던 이유는 많은 굴곡과 좌절을 겪은 이들도 깨달음의 가능성을 똑같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파계하여 소성거사가 된 자신의 일생 자체를 통해 이를 보여주었는데, 소성거사로서의 원효는 ①에서 벽의 시에 화운하여 지었다는 다음의 시에서도 확인된다.

산 둘러 높은 층계 건너고  
발 딛어 난 길 따라갔더니,  
위에는 백 길의 산마루 있으니

35) 서철원, 『원효의 계승 <대승육정참회>와 <원왕생가> 전승담의 참회와 관법 - 향가와 계승 연구의 상호 관계와 방법론적 전망』, 『고전문학연구』 60, 한국고전문학회, 2021, 15~21면. <대승육정참회>의 번역문은 이 논문의 번역을 따랐다.

원효대성(元曉大聖)이 일찍이 집 짓고 살았다네.

영험한 자취 어디로 사라졌나

남긴 진영 비단에 머물러 있구나.

차물 샘에 맑고 깨끗한 물 괴었으니

마시매 그 맛 젓과 같구려.

이곳에 옛날에는 물이 나오지 않아

스님들이 살아갈 수 없었다는데

효공(曉公)이 한번 와서 산 뒤에는

바위 구멍에서 단물이 솟아났네.

우리 선사가 높은 도를 이어받아

짧은 갈초 입고 이곳에 사네.

돌아보건대 팔 척쯤 되는 방에

한 쌍의 신발이 있을 뿐이구나.

시중드는 자도 없으니

홀로 앉아 세월을 보내누나

소성이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면

(원효대사(元曉大師)를 세상에서 소성거사(小性居士)라고도 한다.)

감히 굽혀 절하지 않겠는가.<sup>36)</sup>

위 시의 전반부에서 ‘효성(曉聖)’, ‘효공(曉公)’이라 높여 칭하던 원효를 마지막 부분에서는 ‘소성(小性)’이라는 속칭으로 부르며, 원효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원효방에 거처하는 노승에게 마땅히 몸 굽혀 인사드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 노승을 원효보다 대단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래 포악한 인물이었던 노승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편쪽의 크기가 원효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참회는 이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행의 방편이었다. 원효 설화에서 순일한 깨달음을 상징하는 광덕보다 잘못된 참회를 거쳐 깨달음을 얻은 엄장이 더욱 빛난 것과 유사하게,<sup>37)</sup> 이규보는 낮은 자리

36) 李奎報, <八月二十日, 題楞迦山元曉房(并序)>, 『東國李相國集』 권9, 古律詩. “循山度危梯, 疊足行線路. 上有百仞巔, 曉聖曾結宇. 靈蹤杳何處, 遺影留鶴素. 茶泉貯寒玉, 酌飲味如乳. 此地舊無水, 釋子難棲住. 曉公一來寄, 甘液湧巖竇. 吾師繼高躅, 短葛此來寓. 環顧八尺房, 惟有一雙屨. 亦無侍居者, 獨坐度朝暮. 小性復生世(曉師俗號小性居士), 敢不拜僕區.”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번역(이성우, 1980년)의 번역을 따르되 일부 수정하였다. 이 작품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실려 있는데 약간의 글자 출입이 있다.

에 있던 인물, 나아가 악인일지라도 단련과 노력을 통해 바른 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한번 왕립하여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영험한 이적을 보인 원효라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소성거사라 불릴 뿐이며, 이규보에 의해서는 포악한 과거를 뉘우치고 고승이 된 존재 앞에 우위를 내어주어야 했다.

이렇게 이규보가 원효를 성인의 엄숙한 모습으로만 되새기지 않고 그 입체적인 상대성에 주목했음은 원효의 진영을 보고 붙인 다음의 찬에서도 드러난다.

머리 깎아 민머리면 원효대사요,  
털을 길러 관을 쓰면 소성거사라.  
천백 가지 형상으로 현신하는 것도 손바닥 가리키듯 쉬웠거든  
이 두 가지 모습을 한 것은 그저 한바탕 놀이였을 뿐이라네.<sup>38)</sup>

이규보는 원효를 양면적이고 입체적인 존재로 파악하면서, 원효의 삶을 한바탕 놀이[一場戲]로 규정하였다. 놀이에서는 인물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원효와 사복의 관계처럼, 때로는 더 높은 위치에 놓였던 존재가 어느 순간 더 낮은 자리로 옮기는 일이 흔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규보는 18세에 35세 연상인 오세재의 망년지우를 입었고, 죽림교회에 참여했다가 선배들의 음풍농월을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백운거사전>에는 세속초월적이고 자유자재한 삶의 지향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거침없고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인물이다.<sup>39)</sup> 문벌귀족이 아닌 향리 출신에 자력으로 관계에 진출했다는 점 역시 그가 거리낌 없이 활동하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당시 고승들이 대부분 왕족 출신인 데 비해 원효는 실무 담

37) 서철원, 앞의 논문(2014), 123면에서는 원효 설화에서 엄장은 懺悔를 거쳐 깨달음을 얻은 존재였다는 점에서 순일한 깨달음을 상징하는 광덕보다 더 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고, 그렇기에 좌절을 겪은 깨달음과 순일한 깨달음 사이에 우열 관계가 없게 되었다고 추론하였다.

38) 李奎報, <小性居士贊(并序)>, 『東國李相國集』 권19, 雜著○贊. “剃而髡則元曉大師, 髮而巾則小性居士. 雖現身千百, 如指掌耳. 此兩段作形, 但一場戲.” 『동문선』 권50 『贊』에 동일하게 실려 있다. 번역은 심사위원 한 분께서 해주신 조언에 따라 수정하였다.

39) 박성규, 『백운거사 이규보의 사상과 그 지성사적 위상』, 『계간사상』 33, 사회과학원, 1997, 268~269면.

당층 정도의 집안 출신이었다. 이러한 공통분모는 세속적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두 인물의 자유로운 삶의 태도를 공명하게 했을 것이다.

### III. 원효 형상에 투영된 고려 문인의 내면과 문학적성

초기의 원효 설화 연구들이 원효를 중심에 두고 설화 속 원효의 형상이 얼마나 원효의 실제 모습과 그 사상에 가까운가의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면,<sup>40)</sup> 점차 설화의 전승 과정과 수용자, 전승자의 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학적 의미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심화되었다. 역사적인 시간 속에 실재했던 원효는 설화 속에서 전승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으며, 그 여러 모습은 때로 상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승을 바탕으로 후대 여러 문헌에는 다채로운 원효 형상이 수록될 수 있었다. 앞서 살핀 바 고려 중기의 문인들은 문학적 자아를 형상화하는 창작의 장으로 불교적 사유를 끌어들이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원효를 작품 속에 호출한 까닭은 원효의 생애에서 자신의 일생과 공감할 만한 부분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임춘은 기득권을 지닌 교단과 어울릴 수 없었던 원효의 이미지를, 기성 논리에 포함될 수 없었지만 속인으로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유마월에 겹쳐놓았다. 그리고 여기서, 권력층으로부터 소외되어 비타협적으로 살아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찾았다. 앞서 살피본 <동행기(東行記)>의 말미에서는 “내가 만일 명예나 법도에 얽매어 있었다면 분명 기이한 것들을 찾아다니며 고야한 지취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 하였다.<sup>41)</sup> 벼슬보다 경치 구경과 한가한 흥취나 누리는 것이 낫다는 이 표면적인 언술 아래에는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역량 있는 자신임에도 출세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서운함과 언젠가는 출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자신의 문재(文才)를 자부하며

40) 조동일, 앞의 책, 91면에서는 임춘, 이인로, 이규보의 시문에 남은 원효설화에 대해 “원효설화는 잃어버리고 원효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설화만 남게 되었다. 그런 추세를 바로잡으려고 <유사>에서 크게 힘썼어도 사태가 달라지지 않았다. 후대의 전승에서 원효설화는 더욱 훼손되고 또한 망각되었다”고 혹평하였다.

41) 임춘, 앞의 글, “余若桎梏於名檢之內, 則必不能窮其奇探其異, 以償其雅志也.”

받는 자기위안 등 여러 가지 심사가 얽혀 있을 것이다. 임춘이 정치권력 바깥에 처해있었던 것이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권력과 시속에 타협하지 않고 수행을 멈추지 않는 유마힐과 기성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소임을 행하는 원효의 모습에 대한 동질감이 복잡한 심사 위로 겹쳐있다.

이인로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성숙을 넘나들며 세상에 자신의 사상을 펼쳤던 원효의 신선 내지 예술가와도 같은 면모를 조명하였다. 문벌 출신으로 불가에서 성장했던 처지,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도 말단의 관직과 산림의 모임을 오가야 했던 정치적 불만을 떠올리며 이인로는 원효의 자유분방함을 동경했을 것이다. 격식을 벗어나면서도 어긋남이 없었던 원효의 무애가는 자신이 참여했던 죽림고회의 호탕한 분위기나 맑고 참신하면서도 넉넉하고 화려한[清新富麗] 자신의 문학적 스타일과도 닮았다.<sup>42)</sup> 그가 추구했던 자르고 새긴 흔적조차 없는[無斧鑿之痕] 수준 높은 용사와 그로부터 생겨나는 참신한 문학적성[新意]은<sup>43)</sup> 얽매이지 않는 원효의 무애행과 맥락이 다르지 않다.

이인로가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원효의 모습에 주목했다면, 이규보는 원효의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삶의 태도를 부각하였다. 나아가 원효처럼 위대한 성인이라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그 권위를 해체하고 문학적으로 활용하였다. 성자이면서 속인이기도 한 원효보다, 고승이 되었지만 원래는 포악했던 어느 노승이 더 뛰어나다고 함으로써 낮은 자리나 나쁜 상황에 놓인 이라도 노력과 단련을 통해 성장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교훈을 담아내었다. 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해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원효를 삶이라는 한바탕 놀이판의 실행자(player) 정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원효의 형상은 이규보 자신이 죽림고회의 소외된 문학 활동보다도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역사와 민생을 돌보는 실천적인 삶, 실행자(player)로서 실천적 지식인의 삶을 선택했던 점과 닮아 있다. 출세 지향적이면서도 현실 문제에 충실했던 그의 삶은, 속인이면

42) 서거정이 이인로의 소상광경을 이렇게 품평한 이래 ‘淸’, ‘新’, ‘麗’는 이인로 시문을 평가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였다(박수천, 앞의 논문, 152~154면).

43) 박수천, 앞의 논문, 145~152면에서는 이인로와 이규보의 문학론을 용사와 신의로 대조하는 기존의 도식적 이해를 비판하고, 이인로는 오히려 판에 박힌 용사를 부정했으며 수준 높은 용사를 정묘하게 사용해야 참신함과 문학적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음을 논증하였다.

서 성인이었던 원효와도 일치한다. 그 일치점을 발견했기에 이규보는 이 노승 그리고 원효를 통해 자화상을 그려낼 수 있었다.

#### IV. 결론: 원효의 문학적 수용과 그 의의

이상에서 임춘, 이인로, 이규보의 작품에 나타나는 원효를 매개로 각 문인의 내면의식을 고찰하였다. 이들은 당시 문예와 사상을 대표한다고 평가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재능은 무신 정권하에서 출세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멸문의 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속적인 삶을 지향했지만, 그와 동시에 능력을 발휘하여 입신하고자 하는 갈망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이처럼 이들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 문학적 자부심이나 정치적 불우의식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이와 함께 저마다 지닌 내면의 심사를 원효의 형상에 투영하기도 하였다.

임춘의 경우 원효를 유마혈에 비유하여 비타협적 고독감을 형상화하였는데, 이는 무신집권기 핵심 문벌의 몰락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 소외되었던 자신의 정치적 고립감과 문학적 자존감을 담은 것이었다. 이인로의 원효는 저잣거리의 친한 이들 사이에서 거리낌 없이 춤추고 노래하며 자신의 사상을 펼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성숙과 귀천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원효의 모습에 이인로는 세속에서의 관직 생활과 산림에서의 시문 창작, 정치적 불만과 독보적 문재(文才) 사이에서 갈등하던 이인로 자신의 현실적 고뇌가 투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규보가 원효의 생을 한바탕 놀이로 일컬은 것은 유연하고 상대적인 태도로 소신에 따라 현실에 참여하여 재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자, 권력에 영합했다는 후대의 시선에 대한 세련된 변명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고려 중기 문인들은 당대까지 전승되던 원효에 관한 다양한 기억과 이야기를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여 그 형상을 다채롭게 구사하였다. 세 문인의 원효 형상은 저마다의 관심사와 자의식, 현실 인식 및 문학적 개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변주되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원효에게서 찾아 드러낸 것은 바로 제도권의 경계 또는 바깥에서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문

학적 소재라는 점이었다. 제도권의 경계를 넘나든 사유 방식이야말로 고려 후기 문인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동력원이었으며, 그 바탕에 원효에 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역사적 인물의 상은 후대에 전승됨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고, 전승자 혹은 창작자의 현실적 처지와 문학적 개성 등은 그 굴절의 매개가 된다. 이들에게 원효는 자신의 인생을 투영한 문학적 존재로서 의미가 있었으며, 문인들은 원효와의 공명을 통해 자신의 심사를 풀어내고 작품성을 높일 수 있었다. 고승전의 편린이나 구비전승으로 흩어져 있던 기억이 이들의 자의식과 문학적 역량을 통해 새롭게 각인된 이후 원효는 우리 문학사의 풍부한 자산으로서 끊임없이 변형되며 다양한 얼굴로 재탄생되어왔다. 문헌 기록과 구비전승 설화, 근현대의 여러 작품에서까지 원효를 변화무쌍하게 형상화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 元曉, 『大乘起信論疏』(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한국불교전서).  
\_\_\_\_\_, <大乘六情懺悔>(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한국불교전서).  
義天, 『大覺國師文集』(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한국불교전서).  
一然, 『三國遺事』(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한국불교전서).  
林椿, 『西河集』(한국고전종합DB).  
李仁老, 『破閑集』(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사료DB).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한국고전종합DB).  
『東文選』(한국고전종합DB).  
『新增東國輿地勝覽』(한국고전종합DB).

### 2. 단행본

-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김광순, 『한국구비전승의 문학』, 형설출판사, 1983.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심호택, 『고려 중기 문학론』, 보고사, 2014.  
오대혁, 『원효 설화의 미학』, 불교춘추사, 1999.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1978.  
\_\_\_\_\_,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6.

### 3. 논문

- 경일남, 『남행일일기의 수필적 특성』, 『한국언어문학』 29, 한국언어문학회, 1991, 217~231면.  
김상현, 『사복설화의 불교적 의미』, 『사학지』 16, 단국사학회, 1982, 577~609면.  
\_\_\_\_\_, 『고려시대의 원효인식』,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17-1(통권5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4, 67~85면.  
김익환, 『<東行記>의 隨筆적 特性과 意義』, 『한국언어문학』 54, 한국언어문학회, 2005, 115~134면.  
남동신, 『원효와 분황사 관계의 사적 추이』,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0, 신라문화선양회, 1999, 77~111면.

- 문철영, 『이규보의 나르시시즘과 광기』, 『동방학지』 193, 동방학회, 2020, 87~118면.
- 박근섭,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통해 본 전시동원체제와 식민교육의 성격』, 『교육문제연구』 26,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3, 103~127면.
- 박성규, 『백운거사 이규보의 사상과 그 지성사적 위상』, 『계간사상』 33, 사회과학원, 1997, 65~287면.
- 박수천, 『이인로의 시문학에 나타난 현실참여의 갈망과 문학성』, 『한국한시연구』 20, 한국한시학회, 2012, 133~162면.
- 방민호, 『이광수 장편소설 『원효대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국현대문학학회 학술 발표회 자료집, 2011, 84~101면.
- 서철원, 『설화 속 원효 형상에 대한 이중적 시선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46, 한국고전문학회, 2014, 103~129면.
- \_\_\_\_\_, 『원효의 偈頌 <大乘六情懺悔>의 표현 방식과 문학적 해석의 가능성』, 『한민족문화연구』 56, 한민족문화학회, 2016, 7~42면.
- \_\_\_\_\_, 『원효의 偈頌 <大乘六情懺悔>와 <願往生歌> 전승담의 참회와 觀法 -향가와 계승 연구의 상호 관계와 방법론적 전망』, 『고전문학연구』 60, 한국고전문학회, 2021, 7~34면.
- 여운필, 『임춘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한국한시연구』 4, 한국한시학회, 1996, 203~245면.
- 이동철, 『임춘 시에 나타난 자아인식 고찰』, 『어문학』 55, 한국어문학회, 1994, 281~305면.
- \_\_\_\_\_, 『고려 중기 문인들의 자아 인식의 양상 - 임춘과 이규보의 경우』, 『어문학』 62, 한국어문학회, 1998, 173~198면.
- 이종목, 『이인로의 한시작법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 한국한시학회, 1995, 109~131면.
- 이희재, 『한국불교사에서의 『유마경』의 지위』, 『한국학연구』 3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329~351면.
- 장진엽, 『이규보 문학에 나타나는 자기형상의 양상과 그 의미 -自述의 요소에 주목하여』, 『온지논총』 68, 온지학회, 2021, 141~181면.
- 진성규, 『조선시대 원효인식』, 『중앙사론』 14,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00, 1~22면.
- 최동국, 『이인로 문학 연구』, 『인천학연구』 2-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3, 265~281면.
- 하정승, 『林椿 시에 나타난 허무의식과 悲慨美』, 『포은학연구』 19, 포은학회, 2017, 185~218면.

## The Literary Figuration of Wonhyo in the Mid-Koryŏ Period - Focusing on the Works of Im Chun, Yi In-ro, and Yi Kyu-bo -

Nam, Yun-hye

This study illuminates the inner consciousness and perception of reality held by mid-Koryŏ literati, as projected onto the figure of Wonhyo within their literary works. During this era, when the freedom of the literati was constrained by the military regime, Im Chun, Yi In-ro, and Yi Kyu-bo—representative figures of contemporary literature and thought—each fashioned a unique image of Wonhyo, based on their respective self-consciousness, perception of reality, and literary competence. For these writers, the narratives and persona of Wonhyo served as a literary medium through which they projected their own lives. Through this resonance with Wonhyo, they were able to articulate their inner sentiments and elevate the aesthetic quality of their works. Ultimately, through the literary appropriation and artistic shaping by these three literati, Wonhyo acquired a distinct literary image.

Im Chun likened Wonhyo to Vimalakīrti(維摩詰), fashioning an image of uncompromising solitude. This encapsulate his own political isolation intertwined with literary pride, stemming from his alienation as a scion of a fallen powerful clan during the military regime. Yi In-ro depicted Wonhyo as uninhibitedly dancing and singing among the lowly in the marketplace, spreading his philosophy without hesitation. This image of Wonhyo, freely travers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sacred and the secular, the noble and the base, is interpreted as a projection of Yi In-ro's own anguish rooted in his reality—torn between official service in the secular world and poetic creation in the Bamboo Grove, and between political discontent and his unrivaled literary talent. Yi Kyu-bo's characterization of Wonhyo's life as “a single grand play(一場戲)” can be understood as an expression of his active determination to engage with reality and fully exercise his talents according to his convictions, while maintaining a relativistic attitude unconstrained by fixed social

status.

Keywords: Wonhyo(元曉), Koryŏ literature, Im Chun(林椿), Yi In-ro(李仁老),  
Yi Kyu-bo(李奎報), self-consciousness, Literary Figuration

접수일자: 2025. 9. 30.

심사기간: 2025. 10. 1.~2025. 11. 10.

계재결정: 2025. 11. 10.

